

# 공정 외치던 목포시 첫 인사부터 '잡음'

### 박 시장 동문·동향 요직 배치 논란...법령 무시도 市 "업무 능력·경력 고려, 적재적소 배치했다"

민선 6기 목포시의 첫 인사가 학연·지연에 치우쳤고, 법령을 무시하는 등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냈다.

목포시는 지난 4일 서기관과 사무관급 전보 인사에 이어 6일 6급 이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박홍률 시장이 후보 시절에 '공정 인사'를 공약했고 "누구나 예측가능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밝힌 데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목포고와 조선대 법대를 졸업한 박 시장은 이번 인사에서 특별회계 핵심부서인 상·하수도 행정과장과 직위 공모 최고 선호부서인 자치행정과장에 동문 후배들을 전격 발탁했다.

또 특별회계 사업부서인 교통행정과장

에도 동향인 진도 출신을 전진 배치했다. 더욱이 특정 사업부서에 전문성이 결여된 목포고 출신 일반행정직을 임명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인사'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법령까지 무시한 무리한 인사를 단행해 임명권자의 인사권 남용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는 업무 특성상 감사부서 2년, 민원부서 1년 6월 이내에 전보조치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보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공무원들을 전보 조치해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는 이번 인사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시되는 등 반발이 거세다.

아이디 '큰 근심'은 "청내 무성한 소문들이 현실로 나타나 과연 그것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박 시장은 청내에 나도는 소문도 못 듣고 또 노조 홈페이지에 올려진 직원들의 열망도 못 읽은 것이냐"면서 "눈도 감고, 귀도 막고 시정을 이끄실 생각이나"고 반문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공개된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불만이 빚뚫혔다. 또 일부 공무원들은 "근무평정 조작"을 규탄하는 서명운동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고, 일부는 시장실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등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근무평정은 인사를 위해 매겨지는 일종의 점수다.

이번 근무평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이유는 올 연말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1955년생 사무관 이상이 무려 12명에 달해, 배수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몰래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또 6일 단행된 6급 이하 인사에선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발령 내용 사전 유희'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일 노조 홈페이지에는 5급 승진 최우선 보직인 인사·서무·시정 담당에 정모, 이모, 김모씨 내정설이 나돌았다. 실제 인사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돼 사전 유희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한편, 목포시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인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6기 시정 철학에 맞는 적재적소 배치와 업무능력·경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전북 소식

### 남원시 이도령과 뽕망치 대결 '한판'

#### '광한루원 장원급제 행사'

#### 출연진·관객 직접 소통 인기

남원시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고전소설 '춘향전'을 모티브로 개발한 관광객 체험상품인 '광한루원 장원급제 행사'를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

광한루원 장원급제 행사는 남원시와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회장 배종철)에서 기획한 신규 상설 체험상품으로, 관람객의 정적인 형식을 벗어나 관람객과 출연진이 직접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물이다.

공연은 매주 화·수 오후 3시부터 광한루원 정문을 출발해 춘향사당, 오작교

앞에서 제기차기·닭싸움 등 민속놀이 게임, 이몽룡·춘향의 그네뛰기, 포도존, 장원급제 퍼레이드 등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출연진은 어사, 방자, 취타, 선비, 가마꾼 등 순수 남원시민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연에서 어사의 멋진 모습, 방자의 장난스러운 몸짓, 관람객에게 내려지는 팔굽혀 펴기, 뽕망치 벌칙 등은 매회 새로운 재미와 웃음을 선사한다.

남원시와 관광발전협의회는 앞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상품을 개발해 남원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 순천시, '세계적 생태도시' 브라질 꾸리찌바와 자매결연



### 생태·문화·교육교류 MOU

순천시가 세계적인 생태도시인 브라질 꾸리찌바(Curitiba)시와 손을 잡고 생태환경 도시로 거듭난다.

조종훈 순천시장과 구스타포 프루엣 꾸리찌바 시장은 지난 5일 꾸리찌바시에서 우호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생태, 문화, 교육발전을 위해 교류 협력을 최선을 다할 것을 합의했다. (사진)

꾸리찌바시는 30년전 인구 30만명일 때

환경, 교통, 토지이용 계획을 중점으로 도시 계획을 세우며 친환경 도시로 발전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의 모델이 된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시스템과 1인당 50㎡에 달하는 녹지면적, 폐기물 관리정책, 생태적인 도시계획 등은 세계 많은 도시의 롤 모델로 벤치마킹이 줄을 잇고 있는 곳이다.

조 시장은 지금의 꾸리찌바시를 있게 한 자이메 레르네르 전(前) 시장을 만나 혁신적인 도시를 창조하기 위한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아 정원의 도시 청사진을 현실로 구

제화 시켜나갈 방침이다.

조종훈 시장은 "두 도시가 지향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가치에 깊은 동질감과 도시발전의 모델로 생각해 처음으로 꾸리찌바시를 방문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두 도시는 자구를 살리고 사람이 행복한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로를 끌어 주는 동반자가 돼 순천은 아시아의 꾸리찌바로, 나아가 세계적인 생태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순천=예정기자 iyj@



###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청렴명찰 착용식

#### 복장에 이름 달아 책임감 높여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진범)가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5일 전직원 청렴명찰 착용식을 갖고 청렴의지를 다짐했다. (사진)

사무소는 그동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반부패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전직원 청렴·반부패 서약서를 작성해 청렴의무를 서약했으며, 생활

속 청렴문화를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위한 청렴문과 청렴길 등을 설치했고, 청렴한 자아를 바라보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청렴거울을 부착했다.

이진범 소장은 "이번 청렴명찰 착용은 기존 국립공원 현장근무 순찰복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았던 점에 착안해 탐방객 응대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다 책임 있고, 청렴한 공원관리를 하겠다는 직원들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 전남도소방본부, 신안 홍도 방문...실태 점검·도서지역 안전대책 논의

### 의용소방대 역할·책임 격려

전남도소방본부와 전남 의용소방연합회는 지난 6일 신안군 홍도를 찾아 주민들에게 소화기 40대와 안전장갑을 기증한 뒤 남녀 의용소방대장, 홍도출장소장 등과 함께 '섬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사진)

이날 박정웅 전남도 소방본부장은 동력소방펌프와 미분수 소화장치를 활용한 의용소방대 장비 활용 훈련을 참관하면서 "홍도는 1일 관광객 수가 1000명이 넘는 천혜의 관광지로 관광객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큰 피해 없

이 안전하게 보호된 것은 의용소방대의 초기 대처 등 역할수행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지역 사회의 지킴이로서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홍도 소방 실태 점검은 소방을 도와 지역의 자율 재난대응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 임원진과 함께 실시돼 섬지역 소방 안전대책의 전 단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앞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섬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해 우선 30가구 이상 섬에는 의용소방대를 확대 운영해 화재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화기, 동력 소방펌프, 비상 소화장



치함 등 지역 실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먼저 설치할 방침이다.

또 섬 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119 나르미션을 운영하고, 유사시 소

방헬기를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등 소방력이 열악한 섬 지역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ju.co.kr

### '순창 발전 아이디어' 20일까지 공모

순창군이 민선 6기 최우선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20일까지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외지인이나 관광객이 순창군에서 1만원 이상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시책을 비롯해 재래시장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및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요식업소·숙박시설·위락시설 유치 방안 등이다.

접수는 기획실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서식 또는 군 홈페이지에서 제안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방문,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미션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 한국건설원 감정가 보다 20% 감액 매매 예정  
· 매매가격 상당 후 결정  
· 현장 답사 요망

목포시 대동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NAVER **다들 물어봐** **농협**

**단비플라워**

죽아와완3단 근조와완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저렴한 공장용지**

본촌산단 공장용지  
물류창고부지 최적

· 면적 : ① 39,600㎡  
② 23,600㎡  
· 매가 : 3.3㎡ 당 90만  
◎분할도 매매 가능◎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 지역 : 1종 주거지역  
· 지목 : 전.  
· 면적 : 1917㎡  
· 매가 : 3.3㎡당 120만

**투자 유망**

무안군 운남면 내리 확대한 절경의 해변

· 지역 : 계획관리지역  
· 지목 : 전 및 대지,  
· 면적 : 13,939㎡  
· 매가 : 4억 6천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융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